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9일

CUOMO 주지사,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1주년에 폭풍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계무역센터 현장을 방문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Shaun Donovan 장관, Patrick Foye 뉴욕 항만청 및 뉴저지 사무총장(New Jersey Executive Director), 기타 연방 및 주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계무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뉴욕 항만청은 이 부지에서 수리 및 피해 완화 조치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추가 수리 및 피해 완화 기금에서 3억 달러 이상을 승인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는 세계무역센터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지만 이후 우리는 향후 발생할 극한 기후에 대비해 이 부지를 복구하고 강화하는데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홍수 방벽을 지지하기 위해 안전 말뚝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에서부터 전기설비 및 방수 자재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지난 해 동안 파악된 개선 사항은 다음 번 큰 폭우에 대응하는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세계무역센터 부지의 복구를 지속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라고 Pat Foye 항만청장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향후 발생한 초강력 태풍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인 피해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로 발생한 폭풍 해일로 세계무역센터 부지는 당시 공사 중이던 VSC(Vehicle Security Center)를 통해 약 1억2,500만 갤런의 바닷물에 침수되었습니다. 이 홍수로 사실상 16 에이커에 달하는 부지가 침수되었고 수 억 달러의 피해와 6일 동안의 공사 중단이 야기되었습니다.

이후 VSC에서는 상당한 공사 진전이 이뤄졌고, 완공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우 발생 후 몇 개월 동안 작업반원들이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을 신속히 설치하였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VSC를 빙둘러싸듯이 콘크리트를 부어 VSC 시설과 주변 장벽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콘크리트 작업의 98%가 이뤄졌고 2014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VSC의 이전 및 이후 모습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Korean

http://www.governor.ny.gov/assets/VSC-before-after.png

오늘 현장 방문에서는 기존에 있던 안전 말뚝을 탈착 가능한 홍수 방벽 시스템의 앵커로 활용하기 위한 항만청의 개념 설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앵커는 앞으로 발생할 극한 기후 상황 발생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물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유연한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폭우에 대비해 항만청은 이곳의 복원 속도를 늘리기 위한 많은 피해 완화 조치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반원들은 파손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주요 전기설비를 더 높은 곳에 설치했으며 VSC의 전체 둘레를 방수하는 높이는 거의 4 피트까지 올려 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더 이상의 침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VSC에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파악하여 단단히 막음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반원들은 VSC 안팎과 부지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천 피트의 배관과 대형 펌프 및 비상 발전기도 전략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Hesco 백 또는 특별 제작된 샌드백, 2천 톤의 모래도 쌓아놓거나 추가 보호 조치의 하나로 전략적으로 보관해놓았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